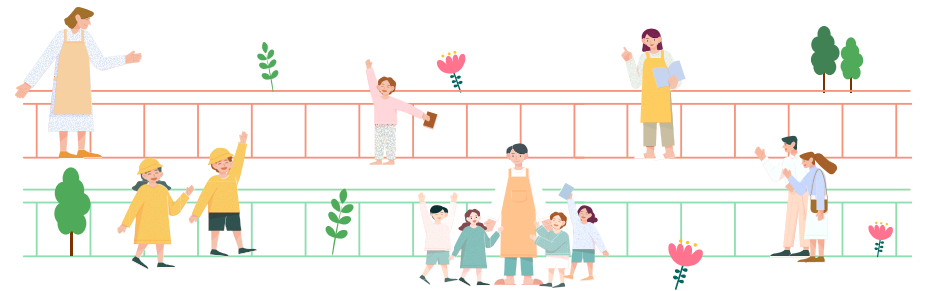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2022-KIHF-181

따뜻한
등봄
등행

2022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2022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2022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대 상	살아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 강세현	2
	달빛의 속삭임 - 김명희	6
	사랑으로 빈자리를 채워가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 윤은숙	9
우수상	사랑 듬뿍, 돌봄 손편지 - 김다솜	14
	진실한 사랑 - 김자영	18
	다둥이 집안 두 번째 엄마, 아이돌봄서비스 - 윤명화	21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행복한 동행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김안나	25
	내 삶에 찾아온 제 2의 전성기 - 박정숙	28
	상큼한 가을햇살 미소를 닮은 아이 - 최민자	31
장려상	책임을 다하려는 부모를 응원해 주는 힘 - 권승희	34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한 내 인생 최고의 날들 - 김복진	38
	두 번째 나의 엄마 - 김준범	41
	육아의 달인, 미자 선생님 - 김현숙	43
	아이돌봄서비스, 나에게 쉽고와 여백 - 민경희	47
	든든한 가족이 되어준 돌보미 선생님 - 박민정	50
	또 한분의 친정어머니 돌봄 선생님께 - 홍옥경	53
	조손가정의 행복 찾기 - 김기정	57
	작은 만남 속에서 커가는 행복 - 김미라	59
	함께 돌보면 어려움도 척척! - 김종임	63
	환갑에 첫 출근? - 김지연	66
	선생님, 웃이 빨간 고추 같아요! - 이규자	69
	나의 보람, 아이돌봄 - 조순정	72
	내 생의 첫 직장 - 전애경	76
	이용가정과 아이돌봄 선생님에게 소통으로 웃음꽃 피워드리는 정원사 - 송은현	79

[illegible]

“.....”

내가 30세에 11개월 연년생의 엄마가 된 것을 처음 알게 된 날.

은 상상 속에도 없던 일이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현실적 여건들이 빠르게 굴러갔다. '육아휴직 기간은? 복직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집이 좁은데 이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현실적 생각들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제 막 앓아있기 시작한 조그만 첫째 딸이었다. 딸에게 미소를 지어주는데 눈물이 났다.

한글날에 임신을 알게 되어 ‘한글이’가 된 둘째는 홀로 뱃속에서 자라났다. 임신한 엄마는 오롯이 첫째에게만 집중했고, 밤에 눈을 감을 때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이 꿈이기를 소망했다. 우울한 생각과 감정이 찾아왔고 마치 이 생각들을 둘째가 듣고 있을 것만 같아 다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태교가 계속되었다. 친정엄마는 일을 하고 계셨고, 연로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육아를 도와달라고 말을 감히 할 수 없었다. 예상 밖으로 흘러가 곧 맞이할 인생을 앞두고 나는 철저히 혼자로 느껴졌다. 그러던 중 친정엄마로부터 가족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상담을 받고 정부의 도움과 체계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현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위로가 되었다. 만삭이 되어 첫째를 육아하면서도 산후조리가 끝난 후 부디 선생님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불안 가득한 임신기를 지나고 나는 첫째가 돌을 맞이하기도 전에 둘째를 출산했다. 출산 후의 과정이 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이른 시기였고, 다시 맞이한 두 번째 출산은 첫 번째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비단 몸뚱만 아닌 마음도 그랬다. 앞으로 펼쳐질 수유와 몸조리와 새벽 육아는 생각만으로도 한숨이 나왔고, 제왕절개의 상처와 고통도 아프고 힘들게만 느껴졌다.

무엇보다 둘째가 사랑스럽고 예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억지로 짜내야 할 거 같은 그 감정 자체는 나 자신에게도 충격적이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엄마로서 자격 없음이 느껴져 우울감이 크게 찾아왔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정에 나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만 같았다. 그렇게 극한의 연년생 육아가 시작되었다.

이제 돌쟁이인 어린 첫째를 양육하며 신생아를 키우는 일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일 밤 새벽에 둘째가 우는 소리는 끔찍하게만 들렸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갑작스럽게 집을 넓혀야 하는 상황에 갇힌채이와 둘째를 데리고 이사를 하고 새

로운 곳에 급히 적응도 해야 했다.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구구절절 삶을 설명할 여유도, 친정엄마에게도 이 상태를 이야기할 천연덕스러움도 없었다. 유일한 삶의 전우인 남편은 매일 감정의 총알받이가 되었고, 출산 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산모 교실에서 출산 전후 우울증에 대해 교육했던 나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바로 내가 되었음을 자각했다. 우리는 인생의 흑한기를 맞이했고, 우리끼리 버티기에는 그 겨울이 너무 매서웠다.

한계치가 임박했을 무렵, 한 달간의 대기 끝에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연계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9월 1일 첫날 아침, 우리는 송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문을 열어주는 그 신발장에서 선생님은 인사를 채 하시기도 전에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며 들어오셨다. 그 말과 음성이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 주러 왔어요.’라는 천사의 말처럼 느껴져 나는 몇 달의 외로움과 힘든 마음이 위로라도 받은 듯 울컥했다. 오신 첫날부터 선생님은 둘째에 대한 특성과 특징들을 꼼꼼히 물어봐 주셨고, 전날 밤의 상태를 확인하셨다. 그리고 소개해준 둘째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어루만지시며 양육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매일 선생님은 우리 집의 평화를 기도하시며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셨고, 아침에는 항상 둘째의 밤 동안의 상태를 확인하시며, 하루 안에 있던 양육과정을 꼼꼼히 기록해주셨다. 선생님의 능숙하고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에 둘째는 당시의 나보다 더욱 친절했을 돌봄을 받았고, 엄마한테서 듣지 못한 “사랑해 OO아.”라는 말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둘째가 송 선생님과 웃고 사랑을 느끼며 성장해 가는 시간 동안 첫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 나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낮에는 밤에 못 이룬 잠을 채우고, 오롯이 나를 위한 재충전을 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자 밀린 집안 일을 늘려갔다. 의무감만이 가득했던 첫째의 육아도 질적으로 채워 나가고, 일상에 조금씩 힘을 냈다. 쉽과 여유가 없어 삭막해져 가던 부부관계에도 회복의 바람이 다시 불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둘째가 8개월이 되던 무렵, 비로소 사랑스러운 둘째 아기의 얼굴이 내게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나 완벽하고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그 존재를 너무 늦지 않은 그때라도 사랑으로 껴안아 주게 된 것에 나는 감사했다. 송 선생님의 방문은 나의 내외적 체력을 길러주게 하였고, 그 체력은 나뿐만이 아닌 가정에도 조금씩 새로운 봄기운을 움트게 했다. 그렇게 선생님을 만난 지 딱 일 년이 되는 오늘, 첫째

와 둘째는 낮가림이 없고, 사람을 좋아하는 밝고 영특한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우리는 안정적인 가정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아이뿐만 아니라 당신을 돌보러 왔어요.” 육아와 산후우울증에 대한 영화 <톨리>에서 주인공인 엄마 샤를리즈 테론에게 돌보미로 찾아온 톨리가 해주었던 말이다. 송 선생님의 매일은 마치 현실의 톨리처럼 둘째의 육아뿐만이 아닌 나를 회복으로 변화시킨 돌봄의 시간이었다. 살아있지만 결코 살아있지 않았던 나날들, 가장 혹독했던 그 시기에 만난 값진 도움과 인연. 그렇기에 우리 부부와 가정에 강하게 각인된 그 도움과 인연은 송 선생님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강동구가족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었다. 그 소중한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에 영화 <톨리> 속 샤를리즈 테론이 돌보미 톨리에게 말했던 대사와 함께 온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한다.

“살아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illegible]

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하기를 표현한다.

이로써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국가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중차대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더불어 국가 대계에 참여하는 돌보미 일은 자존감을 한층 높여 주며 남다른 사고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청군 아이돌봄 서비스'를

스제공기관'에서도 돌보미들에게 지원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일하는데 보람과 자
공심을 높여 주는 중간 역할을 잘해 줬다. 더불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
를 준 기관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 조금 편해지자고 이용자 가정을 쉽게 옮길 수는 없다. 이용자 가정에서 필요로 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아동과는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돌보미에 대한 신뢰는 쌓여 갈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 앞으로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사랑, 신뢰, 따듯함’을 유지하며 일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인생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고자 귀중한 사실이 새삼 고맙다. 이곳에서 소중한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살아 온 지난 60여 년의 삶에는 귀한 의미들이 여럿 있다. 그중 돌보미 일은 단연 손가락에 꼽을 만큼 소중한 일이다. 삶에 귀한 의미를 더해준 돌보미 일 덕분에 나를 성장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일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끌어준 아이돌보미 선배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인과 친구에게 이 일의 좋은 점과 소중함을 강조했고 몇몇은 돌보미 일에 종사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일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고 있다.

일을 마치고 일터로 갔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돌아온다. 운전해서 오는 길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다. 산모퉁이를 돌아 마을 옆길로 들어서니 산 능선에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다. 그 빛은 환하게 나를 비추는 듯 달을 바라보는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가슴에 받아 안으니 달빛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달빛이 속삭인다.

“보고 싶은 네가 오기를 한 달 꼬박 기다렸어. 또 찾아 와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줘서
고마워.”

“아니야, 귀한 일을 하는 너의 길은 항상 밝게 빛날 거야.”

나에게 와준 달빛의 속삭임을 귀에 담는다. 달빛 내리는 소리가 가슴에 와닿으며 마음
이 따뜻해진다. 오늘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나를 꼭 안아준다.

내일 소중한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 새로운 햇살은 또 빛날 것이다.

〈종사자 우수사례〉

[illegible]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사무실에 가려고 하는데 자리에 계시죠?”

“네, 선생님 차 한 잔 드릴 테니 얼른 오세요”

30분이 지났을까? 요란하게 문을 열어 허겁지겁 들어오시는 돌보미 선생님께서 다짜고짜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정신없이 사진을 넘기셨습니다.

“예쁘지~ 예쁘지요?”라는 말을 연실 하시고는 제 얼굴을 한번 보시고 대답을 재촉 하십니다.

“네, 네, 예쁘네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가끔씩 사무실이 들썩여라 이런 비슷한 광경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무슨 일이 펼쳐지는 걸까? 이제부터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과 예쁜 아가들의 따뜻한 좌충우돌 돌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넘게 에너지 충전을 하고 계신다는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은 증평군에서 맛벌이로 인해 양육 부담을 고민하는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없어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쉬고 싶으실 텐데 짬을 내어 허겁지겁 들렀다며 돌보는 아기 자람을 하고 가시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걸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막 뛰어다닌다며 몸무게도 늘었고 키도 훨씬 크게 자랐다고, 예전보다 말도 또박또박 어찌나 잘하는지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의 변화에 돌보미 선생님의 영향이 크다고 인정받아 좋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뽀글이 할머니라는 애칭도 생겼고 슈퍼맨 놀이하느라 뛰어다녔더니 지금도 다리가 아프다시다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자랑거리를 술술 늘어놓으시는 우리 중평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십니다.

“할미할미”하며 가슴으로 꼭 파고들며 안기는 모습을 보고 진짜 친손주냐, 외할머니냐 하고 오해할 정도로 끈적하게 이뻐하십니다.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 나이는 평균 55세 정도입니다. 그러나 60세가 훨씬 넘는데도 50대 초반처럼 짱짱하시고 마음 또한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연세가 드셨음에도 풍기는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 돌보미 선생님으로 제격이시랍니다.

처음에는 “손주만 보다 나이 들어서 내가 할 것도 없고, 누가 써주지도 않아 포기하고 있을 때, 기회를 주는 곳이 있어 용기를 내서 오기는 했지만”이라며 자신 없어 하십니다. 처음 서비스 가정에 들어가실 때는 ‘내가 남의 집 애를 잘 볼 수 있을까?’ ‘말솜씨가 없어서 애들 엄마랑 친해줄 수 있을까?’ ‘혹시 다치거나 아프면 어찌지?’ 별별 걱정거리를 마음속 한가득 풀어내시는 것을 보니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치며 한 걱정을 하신 모양입니다.

선생님과 처음 서비스 가정에 상담가는 날, 하얀 백지장 같이 긴장된 얼굴이지만 나름 여러모로 옷매무새도 만지고 신경 쓰고 오신 모습에선 설렘이 묻어납니다. 이용자 집 문 앞에 다다르자 “휴~휴”하며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 다리를 잡고선 뺨뺨히 고개를 내밀며 주위를 경계하듯 눈을 동그랗게 요리조리 살피는, 이제 돌이 막 지난 꼬마 아가씨가 함께 합니다. 선생님은 얼른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시더니 “어머니 한번 안아 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는 “손 좀 쥐 보세요~ 아이구 이뻐라.”하시며 훌쩍 안고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으십니다. 조금 전에 긴장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전문가다운 포스에 아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서비스는 한해를 훌쩍 넘기며 벌써 3년째 아가와 사랑에 빠져 행복하시다는 우리 돌보미 선생님은 하루하루 이쁘게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에서 또 다른 인

생의 참맛을 경험하고 계시다며 나이가 들어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저 행복하다는 말에 저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도 전담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기며 돌보미 선생님과 미운정 고운정으로 물들여가고 있는 지금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이용자 간의 고충을 이해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제시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안전한 돌봄을 중요시하는 만큼, 항상 긴장 속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끔 우리 선생님들의 고운 목소리가 때론 환청으로 이상하게 들려 깜짝 놀라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오면서 동시에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하나하나 그려집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안좋은 일로 인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안좋은 시선이 느껴질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더 채워 주기 위해 마음 한켠을 그 가정에 고스란히 두고 왔다가, 다음날 마음의 크기를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유언비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아가들에 웃음이 “까르륵~ 까르륵~” 끊임없이 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돌봄 이용자 중에는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는 환경도 열악해 위생은 물론 아이들에게 식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러한 곳에 서비스를 들어가는 선생님들 고충도 듣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가정에 실사도 나가고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거지랑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한데 아이들 생각하면 안 해줄 수도 없다며 말끝을 흐리십니다. 원래 기본서비스는 가사일은 제외된 아이만 안전하게 돌보는 것인데,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 가정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손수 챙기시며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끼니거리가 없어 손수 계란말이 등 밑반찬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간식 달라고 보치면 자비로 빵과 과자도 사다 주고 김치가 떨어지면 집에 먹을 것을 가져다 나눠주십니다. 아이들이 놀 곳인데 안전하고 깨끗해야 한다며 구석구석 청소는 물론 오줌싼 이불 빨래까지 해주시고, 아이가 아프면 지정병원도 척척 알아서 데리고 다니시며 한식구처럼 아이들을 꼼짝이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언젠가는 비타민 음료를 들고 머쓱하게 사무실을 찾아오신 이용자분이 있으셨습니

다. 그분은 다짜고짜 “너무 고마워서요”라는 말과 함께 돌보미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너무 잘 보살펴줘서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집에 못 가게 하고 쉬는 날도 선생님 보러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지나는 길에 들렀다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내 마음을 핑크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날은 연모하는 남정네에 사랑 고백이라도 받은 듯 화사한 봄꽃이 내 얼굴에도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내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침대 모서리에 아이가 이마를 찔렀어요.”

놀란 아이의 울음소리가 전화를 타고 내 귀에 찌렁찌렁 들렸습니다. 순간 긴박한 상황임을 감지하고는 “선생님 일단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고 제가 어머니께 연락하고 가볼게요.”라고 한 뒤 급히 운전대를 잡았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먼저 뛰쳐나갈 듯 “쿵쿵쿵”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흉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말에 서로 손을 움켜쥐며 “정말 이만하길 다행이네요”라는 따스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보미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더 걱정이라며 제 손에도 청심환을 쥐여 주시고 가셨습니다. 며칠 뒤, 궁금함에 연락을 드렸더니 상처도 잘 아물고 씩씩하게 잘 놀고 있다며 “애들이 다 그렇지요. 뭐, 크는 과정인데 돌보미 선생님께서 더 걱정이에요.”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줍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아이들이 안 다치도록 옆에서 잘 돌보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기에 망연자실할 때가 종종 있는데 천사 같은 이쁜 아이들이 사고도 없이 사랑만 맛나게 먹으며 쑥쑥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늦은 오후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거리 홍보를 하러 지역을 순회하던 중, 연세가 들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께 작은 홍보물을 건네며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해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런 게 다 있어? 애들 키우기 어렵다지만 그래도 젊은 엄마들은 좋아, 애도 대신 봐주고.. 나 때는 낮에는 일하고 밥도 하고 애들 키우고 다했어. 밤에는 바느질에 잠이나 제대로 잤는 줄 알어?”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시며 “참 좋은 세상이야, 좋아 좋아.”를 연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는 사회서비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옆집에서 아이들에게 간식과 일과를 챙겨주는 엄마이자, 놀이터에서는 친구가 되어 주며, 재미난 동화책으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시는 할머니로서 아이와 공감하고 소통하고 계십니다. 직업이라는 목적만이 아닌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가슴으로 낳은 내 손주처럼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신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에 사랑이 솔바람 타고 이용자 가정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가정에서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울동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며 동심에 빠져 가족의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을 우리 중평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참 좋습니다.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이들 곁에 있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 듬뿍, 돌봄 손편지

춘천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김 다 숨

30개월의 아이는 엄마와 끊임없이 놀고 싶어 했다. 엄마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 이해는 10분을 넘지 못했다. 집 안에서는 계속 눕고 싶어져서 더 돌보기 어려웠다.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힘들니 그 전처럼 아이와 나가서 바깥에서 걷고 움직였다. 그런데 첫째

하지만 둘째 아이도 지켜야 했다. 나는 두 아이의 어머니니까. 어디든 도와달라고 두드려볼 심산이었다. 그러나 급작스레 첫째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 세 가족은 세 돌이 지나고 아이를 기관으로 보내기로 오래전부터 결정했고, 아직 아이도 기관에 갈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 이외의 선생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우려가 많이 되었다. 아이는 30개월 넘게 엄마와 아빠와만 지냈고, 코로나로 가족들 이외의 어른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더구나 아직 기관 생활을 안 해봤고,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되었다. 하지만 꼭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아이를 믿고, 돌봄서비스를 믿고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부랴부랴 서비스 신청을 한 후, 감사하게도 바로 배정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집에 오기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장기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몇 분이 돌아가시며 오셨다. 그렇지만 센터에서는 집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먼저 매칭해서 보내주시고자 노력하셔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아닌 같은 요일에는 같은 분들이 오셨다. 그런 센터 덕분에 그중에서 가장 아이와 잘 맞는 분을 찾아서 장기로 신청했다. 내가 식사를 챙겨주면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점심때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하게 놀아주셨고,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나가서 아이와 마당에서도 함께 해주셨다. 아이는 정말 처음 몇 분만 낯을 가리고 자기랑 오롯

이 놀아주시러 오시고 성심성의껏 돌봐주시는 돌봄선생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신나게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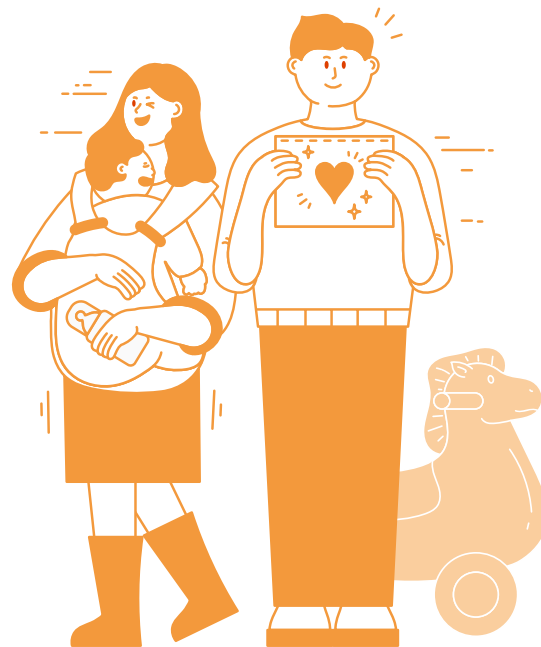
그래서 그동안 난 누워서 쉬거나 몸이 좀 편찮을 때는 아이의 반찬을 준비했다. 그렇게 주 3~4회의 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3달의 임신 초기를 안전하게 보내고 안정기가 되었다. 입덧과 유산위험의 기간을, 첫째 아이도 돌보면서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이었다. 게다가 무급휴직 중으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기업의 베이비시터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검증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이 너무 좋았다. 정말 신기하리만큼, 많은 분이 우리 집에 와주셨지만 딱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주셨고 성심성의껏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셨다. 조금 놀아주다 집안일을 해야 하는 엄마와는 달리 자기와 100퍼센트 놀아주러 오시는 돌봄 선생님에 대한 아이의 애정도 남달라서 안 오시는 날에는 언제 오시냐고 묻곤 했다.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한 선생님은 미술에 특화된 놀이를 많이 해주셔서 아이의 미술 실력이 일취월장할 정도였고, 아이는 선생님과 시간을 즐겼다.

그렇게 몇 달을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느낀 점은 선생님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관되게 돌봄의 질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적으로 선생님들을 잘 교육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신뢰가 갔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에 기쁜 시간이었다.

게다가 아이는 기관에 가기 전 엄마 이외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엔 엄마와 집 안에서부터 분리되기 시작해, 잠시 반찬을 사러 갈 때 선생님과만 있는 식으로 분리를 천천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 이외의 어른들과 혹은 다른 공간에서 대소변을 보는 걸 불편해했지만 돌봄선생님과 시간 동안 대소변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에게는 많은 성장의 시간이었고, 기관에 가기 전 준비기간도 될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은 선생님을 뵈었지만 그중에서도 급히 신청해서 장기로 오시던 분이 못 오셔서 딱 하루 다녀가셨던 나이 많은 돌봄 선생님이 참 기억에 남는다. 처음엔 연세가 꽤 많으시고 걸어서 우리 집까지 방문해주신 선생님을 뵈면서 잘 놀아주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 이외에는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고 계시진 않았다. 하지만 남편도 나도 가장 기억과 마음에 남는 분이었다.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부탁하시더니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아이랑 무얼 하고 놀았는지, 아이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였는지 적어주셨다. 아직도 편지처럼 쓰인 그 활동기록지가 마음 한구석을 찡하게 울려서 잘 보관하고 있다. 저마다의 살아온 모습대로, 돌봄선생님마다의 돌봄 방식으로 아이와 함께 해주셨고 그 덕분에 아이도 나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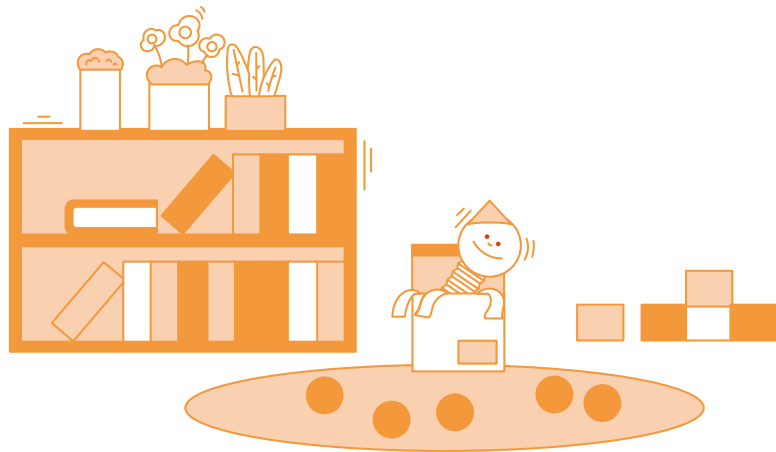


[illegible]

오는 길에 주웠다는 오글거리는 여느 유머와는 다르게 돌봄 선생님의 답변은 출근
길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꽃, 나무의 이름부터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까지 바쁜 업

밝은 목소리로 소개하며 아이들에 대해 꼼꼼히 묻는 선생님과 첫 통화를 끊고 그
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무슨 감정일까. 안도감? 그레 간단히 안도감이라고 하자.

“자연을 닮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둥이 집안 두번째 엄마,									
아이돌봄서비스									
								진해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윤명화									

저는 8살, 4살, 3살 세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많을 걱정과 어려움을 딛고 제가 세 아이를 키우며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배려와 도움도 있었지만 이서빈 선생님의 도움이 참 컸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의 셋째 아이는 계획하에 가진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고 사랑의 결실을 축복으로 맞아야 함이 당연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던 저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많은 고민 속에서 가족들의 배려와 사랑에 용기를 내었고 저 또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나니 저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 한없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둥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저희 셋째가 축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저는

아이들의 양육과 일에 대한 많은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용을 전공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문화센터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활발히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도 열심히 활동했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쉽 없이 무용을 배우고 가르치고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랬던 만큼 저에게 있어서 일은 저의 성장기 시절부터 젊은 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였고 그만큼 특별했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직업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불안정했으며 강사라는 저의 직업은 전문 강사를 구하기도 힘든 직종이라 빠른 복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거리적인 제약과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 도움을 청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둘째 아이 때 도움을 받았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떠올리게 되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또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월, 따뜻한 봄날 봄 햇살 같은 이서빈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복직해야 하는 저의 마음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고 계시기라도 한 듯 선생님께서는 아이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시며 돌봐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생님의 진심이 담긴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작은 것 하나도 세심하게 챙기며 아이를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아이도 더 나아가 저희 가정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선생님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잘 자랐고 시간이 갈수록 아이도 선생님을 잘 따랐습니다. 오실 시간이 다가오면 문 앞을 서성이며 한참을 문 쪽을 바라보며 선생님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퇴근 후 선생님께 안겨 있는 아이에게 팔을 내밀어도 선생님 품에 안겨 저에게 오지 않으려고 해서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선생님께 사랑받으며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고 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플 때마다 약 먹기를 너무 싫어해서 다 뱉어버리고 울고 약을 쓰는 아이 때문에 약을 먹이기 너무 힘들어 찢절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열로 힘들어했고 약은 먹으려 하지 않는 아이 때문에 제 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 까맣게 타들어 가 는 듯했습니다.

이런 저의 힘들고 걱정을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일인 듯 아이도 저도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제가 민재 약 먹을 수 있는 방

법을 찾았어요. 요거트에 타서 먹여주니 민재가 약을 잘 먹어요.”라고 얘기하시며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시며 어떤 날은 저보다 아이의 컨디션, 몸 상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계셨고 저에게 알려주셔서 아이를 돌보는데 항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등을 쓸어주시고 다리도 주물러주셨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고기가 식지 않게 여러 번에 걸쳐 주방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고기를 조금씩 구워내며 아이를 정성으로 먹이고 돌봐주셨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사소한 행동, 습관 등 어떤 면에서는 엄마인 저보다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크다는 걸 저도 아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움직임도 많아졌고 활발했으며 고집도 세져 저도 때때로 아이를 보는 데 지치고 힘들게 느껴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쯤 선생님께 “민재가 요즘 고집도 많이 부리고 때때로 심해져서 돌보시기가 많이 힘드시죠?” 여쭙었습니다. 제 걱정과 염려와는 달리 선생님께서는 “어머니 제가 민재를 100일도 전부터 보았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는 이렇게 고집부리고 떼쓰는 모습도 ‘민재가 이만큼 자랐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대견하고 귀엽기만 해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말씀에 힘들게만 생각했던 저 자신이 반성되고 엄마로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함께 선생님의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얘기 드렸던 날도 선생님께서는 ‘100일도 전부터 내가 돌보아 왔는데 민재는 내 아들이기도 하다.’며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2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민재가 뒤집고, 기고, 첫걸음을 걷고, 떼쓰는 모습, 애교부리는 모습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도 세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아이에 대한 사랑과 세심함으로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점을 배우고 반성하며 저 또한 엄마로서 성장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서빈 선생님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기 전에 저에게 어떤 날은 저의 힘들음을 알아주고 덜어주는 친정엄마 같았고 어떤 날은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글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의 반의반도 담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짧게나마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감사함에 표현해 봅니다. 어느 날인가 헤어져야 하는 날을 생각하면 벌써 눈물

이 날 만큼 저도 아이도 너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선생님과 함께해온 시간이 너무 감사해 이젠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서빈 선생님! 선생님의 따뜻한 돌봄과 마음이 아이에게도, 더 나아가 저희 가정에도 평안함과 안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선생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 마음속 깊이 새기며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우수사례〉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행복한 동행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강남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김 안 나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로 활동한 지 어언 11년 차가 되어간다. 그동안 사례공모가 있었지만 수줍은 마음에 응모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어느새 올해 10년째 돌보고 있는 김담우(현 초등 3년, 김담윤(현 초등 2년) 형제와 함께한 동행 일기를 문득 끄적여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적어 내려간다.

김담우 어린이가 생후 7개월 되던 해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종일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쩌면 부모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엄마께서 집에 오시면 퇴근하는 나를 보고 작별이 아쉬워 슬피 울어주기도 하는 아이를 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하기도 했고, 아침엔 아이들이 보고 싶어 빨리 뛰어가기도 했다. 나의 ‘직장’이기 보다 나의 ‘힐링처’가 아니었나 싶다.

어느 날 담우 어머니께서 동생을 갖고 싶다고 내게 돌봄 해주실 수 있냐며 물었을 때 난 주저 없이 환영했다. 그런 축복 속에 담우 동생 담윤이가 탄생하였고 담윤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남을 가져서인지 더 애뜻했다. 영아기를 거쳐 유아기 그리고 어느덧 초등학교가 된 담우, 담윤이가 나는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고 기특한지 언제나 감동하고 있다.

담우, 담윤 형제는 5살 때 <한국을 빛낸 100인의 위인들> 노래를 다 외워 나에게 불러주며 자기도 훌륭히 커서 저 위인들 노래 가사로 불리고 싶다는 대견스러운 말을 건넸다. 그에 맞추어 형제들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특히 담윤이는 형에게 공손해지는

귀여운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소가 지어진다.

물론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사춘기적 시기의 어려움도 있었다. 그중 귀엽게 기억나는 한 예로는 신발을 거꾸로 신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일이었다. 워낙 아가 때부터 순한 기질과 착한 인성을 보아 왔던지라 “오늘 어린이집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며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다시 바르게 신고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하원을 했던 기억도 스쳐 지나간다.

형제간에 다툼도 종종 있지만 서로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화해시키면 어색해도 꼭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 아는 이쁜 형제들이다. 그러한 훌륭한 인성은 부모님의 따뜻함과 엄격함의 균형이 큰 역할을 하였다. 형제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독서의 생활화 등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교육관을 보이며 내가 돌봄 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구축해 주셨다.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었을 때 담우, 담윤이는 입학식도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슬픈 ‘코로나 세대’였다. 줌(zoom)으로 인한 수업으로 컴퓨터에 익숙지 않던 나도 참 바빴던 기억이 난다. 한가지 에피소드로 줌 수업에 동생 담윤이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니까 큰 소리로 형이 지금 2학년인데 같은 반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에 얼마나 웃었던지 모른다. 코로나로 학교 현장에서 입학식도 못 한 아이들이 줌으로 수업하면서 발생한 귀여운 에피소드였다. 또래 친구와의 만남보다 어쩌면 제일 절친이 되어버린 형과 같이 학교에 다니고 싶었나 보다.

어느 날은 가족에 대해 작성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나의 이름을 적는 것이었다. 웃으며 아니라고 설명하니 툭툭툭툭한 눈망울로 “왜요?”라며 물었던 기억도 있다. 아이는 내가 당연한 가족이었고 아니면 내가 가족 구성원이었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이지 않았나 싶다. 이렇듯 순간순간 아이들과 함께한 많은 추억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또 한 번 ‘내가 돌봄 선생님을 하기 정말 잘했구나’라는 가슴 뭉클했던 일이 있다. 담우, 담윤이의 엄마께서 어느 날 박사 과정 공부를 하신다며 내게 아이들 돌봄을 더 부탁해주셨다. 나는 직장생활도 힘드신데 공부까지 하심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응원을 해드렸고 어느덧 고생스럽게 박사 과정을 마치며 내게 첫 논문 필본을 선물해 주셨다.

그런데 논문 인사말에 내 이름 세 글자가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퇴근하며 펼쳐 본 논

문을 보며 지하철에서 울컥 눈물이 났다. 물론 그동안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따뜻한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리 소중한 박사 논문에 내 이름을 거론해 주심에 너무 감사했다. 그동안 나의 삶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아이들처럼 얼마나 자랑했었는지 모른다. 참고로 그 사진은 내 프로필 사진 중 하나로 차지하고 있다. 그 논문은 나의 책꽂이 정중앙에 빛나게 꽂혀 있는데 사실 작년 수상했던 아이돌봄 강남구청장상보다 더 소중한 상패이자 훌륭한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 기억나는 일은 부모님 대신 대전에 계시는 외할머니 댁에 가는 기차를 태워 보내야 했던 일이다. 좌석에 아이들을 앉혀 주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자기 자리라며 핸드폰을 통해 두 번이나 좌석 번호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너무 당황해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인 담윤이가 슬쩍 아저씨 핸드폰을 보더니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아저씨께서 웃으시며 다급하게 일어나셨다. 순간 우리 담윤이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커서 이제는 당당하게 실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는지 끝없는 감탄도 했다.

기차가 움직이고 창가에서 손을 흔들던 담우, 담윤이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른다. 잠을 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가족과 친구들과 북적거리는 수다들 속에서도 불현듯 생각나는 우리 아이들.... 이렇듯 두 아이와의 동행은 세월의 흐름에 무뎌져 가던 감성에 향기 그윽한 싱그러운 청량함으로 다가온 힐링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제는 기쁨이고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존재가 된 나의 두 아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품어주는 선생님이자 엄마이자 친구처럼 어제와 오늘도 또 내일도 걸어가고 싶다.

〈아이돌보미 우수사례〉

내 삶에 찾아온 제 2의 전성기!

딩동딩동!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가 저렇게 초인종을 급히 누르나 서둘러 달려 나가 문을 열었지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와 ○○엄마가 나를 외락 껴안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가운 얼굴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부둥켜안고 기뻐했습니다. ○○이는 백일 무렵부터 6살까지 졸곧 돌보던 아이입니다. 아이는 물론 아이 엄마, 오빠, 조부모님들까지 모두가 가족처럼 지냈지요. 아이의 엄마, 아빠가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면서 아이 엄마는 생활 전선에 더 열심히 뛰어들어야 했고, 아이는 밤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까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아이 엄마가 삶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정말 친손주처럼 살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적어도 자식 때문에 힘든 일은 없게 만들리라! 덕분에 자리를 잘 잡은 이 가정은 화목하고 건강하게 독립해나갔습니다. 이런 ○○이가 학교에서 쓴 편지를 꼭 갖다줘야 한다고 아침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행복함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가고 난 뒤, 문득 생각해보니 아이돌보미를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내느라 이런 일 저런 일 마다하지 않고 한 이 일이 내 천직이 될 줄 몰랐

습니다.

마치 나에게는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다 보니 이 일반급 내 적성에 딱 맞는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대견도 하고, 이용자 부모님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아이와 가족이 행복하니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막내 맡아 주실 거지요?”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고, 나이도 있고 이제 젊은 사람한테 맡겨요!”

“선생님, 나 선생님 믿고 아기 낳았는데 그럼 뱃속에 다시 넣어요!”

내 말에 이리 살갑게도 되받아 쳐주는 아이 엄마 부탁을 어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나는 요즘 감사함의 무게를 한층 더해주는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돌을 넘은 △△이는 “이무 이무”하며 안기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이른 봄비가 보슬보슬 내릴 무렵 두 쌍둥이를 보기 위해 처음 집에 방문했습니다. 쌍둥이 엄마는 두 아이를 이리저리 혼자 보느라 아주 분주해 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쌍둥이 엄마가 아직 전업주부로 집에 있을 때였는데 조금 큰 딸과 두 쌍둥이를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 만난 내 손을 꼭 붙들며 살갑게 맡았던 쌍둥이 엄마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쌍둥이 엄마와 나는 그날부터 줄곧 저녁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면 여지없이 따라 오는 쌍둥이들을 돌을 서로 안고 어르고 달래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놀아주는 일들을 함께하며 조금씩 유대감을 쌓아나갔지요.

매일 나누는 진솔한 대화들도 서로에게 참으로 힘이 되었습니다. 말 못 할 고민을 나누며 토닥토닥 위로받기도 했고, 기쁜 일들은 축하해주며 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이 엄마는 육아 선배로서 내가 이야기해주는 팁들을 들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나 또한 야무지고 지혜로운 아이 엄마의 젊은 가치관과 지식을 배우며 삶이 풍요로워졌지요.

이 직업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애만 잘 보살펴주는 일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일이며, 나아가 가정을 지키고 세워주는

일, 미래의 세대를 바르게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삶의 생계를 뛰어넘어 한 가정 한 가정,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설레게 했지요. 일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나 자신을 더 깊게 사랑하는 계기도 되었지요.

그래서 나는 ‘아이돌보미’라는 내 일에 대해 좀 더 진심으로, 좀 더 사랑을 다 해, 좀 더 열심히 뛰여보기로 했습니다. 맡겨준 그 가정을 내 가정처럼 소중히 여기면서요.

오늘도 하원을 하는 유치원 버스에서 방긋 웃으며 톱톱 튀는 △△이를 만났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집에 들어왔지요.

“선생님, 비오니까 좀 이따 내 우산 쓰고 가!”

“선생님, 내가 요리해줄게!”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버린 쌍둥이들이 나를 챙깁니다.

“이무 이무!”

막내도 덩달아 내 입에 과자를 넣어주고요.

“선생님, 냉장고에 우리 신상품 요거트 넣어놨으니까 드세요!”

아이 엄마는 이렇게 종종 전화해서 나를 챙깁니다.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이 된 아이
엄마는 막내 근심을 덜고 새로운 창업 활동에 매진 중이지요.

우리 손자와도 꽤 친해져 주말이면 네 아이가 놀이터에서 만나 다 함께 놀기도 한다.

꼭 한 가족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이돌보미’라는 내 직업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저는 롤루랄라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아돌보미 우수사례〉

[illegible]

청명한 가을날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장마와 무더위, 태풍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어느새 여름이 가고 어김없이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봄니다.

저만의 풍요로운 아침 시간, 집안일을 마치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을 마시며 문득 변
화무쌍한 날씨와 계절의 변화가 꼭 저의 지난 1년과 닮았다는 생각에 빙그레 웃음 지
어봅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워킹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두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어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에 다니던 직장에도 퇴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지금도 어디에선가 나처럼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일하는 엄마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이돌보미 일을 하는 친구와 성당의 지인들을 보며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세하게 업무의 성격을 알고 나서는 이 일이야말로 내가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에 아이돌보미 모집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가족센터 교과과정에 따라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난 것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센터 담당 선생님께서 이용자와 아이의 제반 인적 사항과 가정형편 등을 알려 주시며 염려와 걱정의 말씀이 있었지만, 새로운 아이를 만난다는 기대에 부풀어 주저 없이

수락했고 그렇게 4살짜리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너무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성의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이는 잘 놀다가 이유 없이 울기를 반복했고, 툭하면 골을 부리며 구석진 곳으로 가서 웅크리고 쭈그려 앉아있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 나름대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아이가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나, 무관심하게 방치됐거나,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조심스레 아이의 엄마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직장 일로 힘들고 어린 나이에 육아가 서툴다 보니 잘해 주어야겠다는 마음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의 일 같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첫째 인내하기, 둘째 안아주기, 셋째 들어주기, 넷째 칭찬하기 이 네 가지 행동 지침을 나름대로 가슴에 새기고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우는 횟수는 점점 줄고 골 부리는 시간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다가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좀 더 많은 경험을 체험하며, 보여주고 겪어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와 센터담당 선생님께 그동안은 아이의 집에서만 돌봄 활동을 하였으나, 상황에 맞추어 교대로 저희 집에서도 돌봄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지 조심스레 문의를 드리니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오히려 고마워했으며 센터 담당 선생님께서도 이용자가 수락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의 집과 저희 집을 오가며 아이돌봄 활동을 이어 왔는데, 아무래도 아이의 집보다는 저희 집이 새롭고 또 동갑내기 강아지(말티즈)가 반겨주어서 그런지 저희 집에만 오면 신이 났습니다. 이방 저방을 뛰어다니며 아들의 책과 인형을 가지고 놀면 하루해가 짧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 아이를 무작정 먹고 놀며 시간 보내기에만 급급한 돌봄 활동은 너무 무의미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놀이와 학습을 위해 종이접기 책을 구매해서 제가 먼저 공부하고 같이 종이접기 놀이를

하거나, 지능개발 퍼즐을 여러 종류로 구입하여 번갈아 가며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 후배와 지인들께 부탁하여 손주들이 다 본 지나간 책이나 장난감을 얻어와 같이 공부하며 경험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버리기에 너무 가까운 예쁜 신발이나 옷을 한보따리 얻어오기도 했는데, 아이 엄마한테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더 고마워해서 제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도와 ○○이가 오면 우선 손을 씻기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묶어줍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 손주가 없다 보니 손녀처럼 예뻐해 줍니다. 그동안의 애기를 들어주며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은 통기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 ○○이가 아직 손이 작아 코드를 잡을 수 없지만, 같이 기타 줄을 튕기며 노래를 해 줍니다.

아이 엄마는 ○○이가 너무 변했다며 만날 때마다 고마워하고, 특히 어느 날 아이를 하원 시키려고 어린이집을 들렀는데,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이가 이렇게 변한 것이 모두 돌보미 선생님 덕분이군요~!" 하시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1년을 돌아보면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에 '이것이 아이돌보미의 보람이구나, 내가 선택을 너무 잘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돌보미란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홍보하는 돌보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항상 관심과 배려로 이끌어 주시는 청주시 가족센터 센터장님과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용자들을 처음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후 아이돌봄 비디오투를 이용자와 같이 몇몇이 볼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가 인성 깊고 배려심 많은 예쁘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항상 돌봄 시간이 끝나면 아쉬워하기에 더 놀아주고 헤어져야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돌아설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볕이 쏟아집니다. 문득, 상큼한 가을 햇살 미소를 닮은 ○○이 얼굴이 떠올라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illegible]

나는 생계형 한부모 워킹맘이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외롭다. 내 새끼 어떻게 될세라 홀로 알을 품듯 누구와 교대할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자식은 오로지 내 몫이라고 생각해 내가 다 품어야 했기에 아이를 품고 있는 어미의 마음은 늘 무거웠다.

퇴근할 때부터 아주 아팠던 어느 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속내를 모르던 딸은 어딘가 힘들어 보이는 엄마에게 더 좋을거렸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아버지에게 위로 받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나 보다. 단지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들은 어느새 내 잘못으로 돌아왔다. 이런 익숙한 기억들은 39년 동안 오래 묵은 내 상처다. 내 안에 결핍과 슬픔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안다 해도 거기까지다.

그리고 난 설거지를 하며 돌아서서 울고 있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설거지하며 소리를 참아내며 울고 있는 나에게 딸이 다가왔다. “엄마 울지마.” 딸은 아주 작디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겼다. 딸의 심장이 쿵 쿵 쿵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뛰고 있는 아이의 심장소리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렇게 딸과 나는 고비를 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고비는 있겠지. 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넘으라고 있는 거니까’라며 오늘 하루도 나와 아이를 다독이며 내일을 준비했다.

한부모 엄마 2년 차, 그리고 생계형 직장에서 나는 홀로 외출 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버텨야 했다. 아침부터 딸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좋아하던 수영 학원을 빠지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2주일은 지났기에 선심 쓰듯 오늘은 조금 쉬라며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할 즈음 전화가 왔다. “엄마...” 딸의 울음소리였다.

“엄마, 혼자 있을 수 있어. 회사 잘 다녀와.”라며 엄마를 보냈지만 39.5도의 열을 감당하기엔 아직 작은 아이였다. 코로나19때도 같은 상황이었다. 딸의 전화를 받은 후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 되어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아이에게 달려갔다. 고열에 시달리다 힘이 다 빠져 걸지도 못하는 아이를 들쳐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것이 얼마 전인데 또 다시 회사에 말하러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답이 뭘까?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 가족에게 빛이 되었던 돌봄>

아파서 울고 있는 아이를 전화로 간신히 달래면서 머리 속은 초조하고 뜨거웠다. 회사에 뭐라고 얘기하지? 2주 전에도 같은 일로 쉬었는데, 지금 다시 얘기한다면? 내 입장을 회사에서 이해는 해줄까? 동료들은? 온갖 생각들이 머리 속을 복잡하게 했다. 이 상황이 왜 이리 화가 나는지, 기댈 곳이 없는 나 자신이 처량하기까지 해 왓카 눈물이 났다.

눈물이 흘러대는 와중에도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했다. 문득 등록 해놓았던 아이돌봄센터가 생각났다. 당장 아이 돌봄이 가능할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센터에서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의논을 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붙잡고 휴대폰 액정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렇게 기다리길 10분쯤 흘렀을까? 전화기 화면으로 센터 전화번호가 보였다.

“어머님, 원래 이렇게 당일 날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사정이 그렇다고 하시니 이번은 저희가 선생님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시부터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던 것 같다. 얼얼한 엄마의 심장을 녹였다. 눈물이 그치기 시작했다.

배정이 된 선생님의 연락처를 받았고, 가능한 선생님께서 1시간 이내로 와주신다고 하셨다.

선생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아이의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시던 선생님들께서는 아이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 약 먹이는 시간 등을 꼼꼼히 물어봐 주셨다. 자식을 키우며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오늘도 잊어 버렸다.

선생님이 집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들었던 순간부터 안심이 되기 시작했다.

<책임을 다하려는 부모를 응원해 주는 힘>

힘이 없어 약조차 챙겨 먹지 못하고 있던 딸은 울고불고 계속 전화가 왔다. 어미 목소리라도 듣고 있어야 했던 모양이다. 한 시간 뒤 돌봄 선생님께서 도착하셨다. 그리고 아이 열을 바로 체크하고 컨디션을 확인해 주셨다. 열이 많이 떨어졌다며 혹시 열이 더 오르면 연락을 주신다고 문자를 주셨다. 그 문자 하나하나가 걱정되고 불안한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퇴근 후 도착했을 때 아이는 많이 힘들었는지 웅크리고 누워서 자고 있었다. 딸을 꺼안았다.

엄마가 온 것을 알고도 힘이 없어 누워있기만 했다. 그리고 옆으로 눈을 돌렸을 때 앞치마를 입고 있는 돌봄 선생님이 보였던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 모습 자체가 위로되었다.

대구 북구 아이돌봄센터와 한걸음에 달려 와주신 돌봄 선생님들 덕분에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와주셨던 선생님께서 정기적으로 오셔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봐 주고 계신다.

최고로 좋은 엄마는 함께 하는 엄마겠지만, 내가 옆에 없을 때 아이에게는 돌봄 선생님이 완벽하게 엄마의 공백을 채워 주신다. 돌봄 선생님이 오시고 난 후 고요했던 모녀의 집에 하하 호호 웃음이 가득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계셔서 좋아?”라는 나의 물음에 딸은 “응, 더 이상 외롭지 않아.”였다.

나 역시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일과 육아에서 균형점을 찾았고 죄책감으로 미안했던 엄마에서 당당히 일하는 엄마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되었다.

엄마인 나에게도 돌봄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오시고 난 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나서 딸의 질문에 더 따뜻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엄마, 나를 왜 낳았어?”

“음……넌 왜 낳았냐고? 같이 재미있는 거 많이 하려고,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 함께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세상에 재미있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

“정말이야?” 함박웃음을 지으며 딸은 한 번 더 물어본다.

“응, 진짜야. 앞으로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하자! 엄마가 함께할게! 사랑해 내 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응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llegible]

6개월 차이를 두고 2번에 나누어 수술하면 아무래도 성기와 내부조직이 그만큼 성

한번은 아파트 옆 라인 가까운 층 두 집이 한 달간 동시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소
음이 어마어마했다. 소음으로 인해 도저히 아이 낮잠을 재울 수가 없어 생각난 곳이 키

수호 엄마 김복진 드림

[illegible]

작년부터 우리 선생님은 제 동생 기범이가 태어나서 돌봐주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이 기범이에게 맘마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키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동생 기범이도 저처럼 선생님을 너무 좋아

해요. 선생님이랑 헤어질 때면 가지 말라고 ‘응애! 응애!’ 울기도 하고, 문 앞에서 있기도 해요. 저처럼 선생님의 짝꿍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 돌봄센터에서 원에 수업으로 ‘화분 심기’ 체험이 있어서 선생님과 함께 갔는데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심은 화분에 물을 주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가 뿌듯한 느낌도 들어요. 저에게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플레이콘 만들기’ 활동도 선생님이 센터에 신청해 줘서 너무 재미있게 만들기도 했어요. 내 동생 기범이도 저처럼 선생님과 추억이 하나하나 만들어졌겠조?

선생님의 마음이 기범이에게만 갈까 봐 살짝 걱정은 되지만, 우리 엄마가 “준범이는 11년이나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기범이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야”라고 얘기해 주어서 조금은 안심돼요.

혹시나 우리 선생님이 이글을 본다면 이렇게 꼭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항상 내 옆에 있어 줄 거
죠? 우린 가족이니까 헤어지지 말아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선물도 주고 맛있는 거 많
이 사줄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선생님! 아프지 마!”

선생님~! 준범이 기쁨이 엄마입니다. 준범이가 글을 쓴다고 해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몇 자 덧붙입니다. ‘인연’이 있다면 우리 가족과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무한믿음’이 있었기 때문 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편안한 믿음으로 다가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다 보니, 11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복직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 했을 거예요.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은 아이들을 비롯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너무나 힘든 일인데, 선생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어요. 또한 다양한 행사와 철저한 관리 지원으로 이용자 가정을 생각해 주시는 대구 북구 아이돌봄센터에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안정된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우리 가족처럼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용자 우수사례〉

		육아의 달인, 미자 선생님							
									순천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김현숙				

2019년에 태어난 아이가, 어느덧 어린이집의 최고참 반에서 활동할 정도로 눈에 띄게 자랐다. 무럭무럭 잘 자라 준 덕에, 출산 4년여 만에 비로소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다. 그 덕분에,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수가를 공모한다는 안내문도 볼 수가 있었다. 공모 주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가족의 건강한 변화나 소중한 사례 등이었는데, 우리 가족은 이 모든 공모 주제에 해당하는 은덕을 입었다.

때는 2019년 2월, 나는 결혼한 지 꼬박 5년 5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남편과 내 몸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 아이를 포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딩크족(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으로 살고 있다고 말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쯤 아기가 찾아왔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아이를 쉽게 갖지 못하니 주변 사람들의 참견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시험관 시술을 해 보라”, “아이를 점지해 주는 절에 가서 기도해 보라”는 등 주변 사람들의 오지랖에 못 이겨 기껏 생각해 낸 묘수가 바로 ‘덩크족 선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아이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된 건 2021년 여름. 프랑스에서 독일로 가던 기차 안에서였다. 선박을 제외한 어떤 교통수단에 몸을 실어도 멀미라는 걸 일절 하지 않는 내가 그

날따라 심하게 멀미를 했다. 그리고 매년 유럽에 오고 갈 때마다 없어서 먹지 못하던 납작 복숭아도 마다했다. 며칠째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나를 수상히 여긴 남편이 결국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구해왔다. 테스트기를 받아든 나는 언제나처럼 ‘비임신’일 거라고 생각하며 테스트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아이를 어렵게 가진 것만큼이나 어렵게 품어야 했다. 아이가 나오기 이틀 전까지 입덧을 했다면 믿을까? 아이를 품고 있는 아홉 달 동안에 체중이 9kg이나 감소했다. 그리고 위액을 쏟아낼 정도로 심한 입덧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나에게 임신의 매운맛을 보게 해 준 우리 아들은 36주 2일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다행히도, 다른 아기들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난 것 치고는 건강했다.

하지만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 회복 전까지는 매일 피바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이 살뜰히 간호해 주긴 했지만, 모자동실인 병원의 특성상 모든 게 내 몫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친정에서 몸조리를 한 후, 백일만에 돌아온 우리집에서도 여전히 바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니 깊은 한숨이 나왔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남편과 단둘이 살 때는 ‘절 같이 조용한 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 이야기가 180도 달라졌다. 낮과 밤의 개념이 없는 아이는 한결같이 울어댔고, 나도 나이지만 남편이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피곤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장고(長考) 끝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보기로 했다.

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된 계기는 함께 성당에 다니는 이웃 언니를 통해서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서툴렀다. 또한 출산 이후로 산후 우울증까지 앓게 된 나를 위해 언니가 알려 준 구원책이기도 했다. 아이를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처음이라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아이돌보미가 미자선생님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생애 단 한 번뿐인 인연’처럼, 연계되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 미자선생님은 내가 다니는 성당에서 이미 유명한 ‘육아의 달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미자선생님을 만난 건, 우리 아이가 십 개월이 되던 즈음이었다. 처음 만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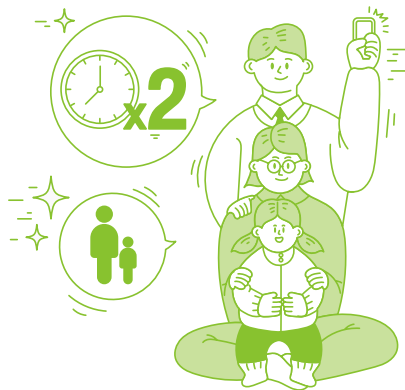
날, 선생님은 내게 수줍게 인사를 건넸다. 육아로 피폐해진 나도 덩달아 미소 짓게 될 정도로, 온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선생님은 일주일에 세 번 정성을 다해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외출 전 만들어 둔 이유식도 살뜰히 챙겨 주었고, 출산 전에 구매해 두었던 높은 수준의 책도 아이의 눈높이에서 읽어 주었다.

모든 돌보미분이 그러하겠지만, 내가 미자선생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아이에게 베풀지 못한 ‘온전한 사랑’을 알려 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만큼의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여유는 커녕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 발코니만 바라보고도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독한 항정신성 의약품을 꼬박 6개월 동안 복용한 후에야 증상은 호전되었다. 내가 온전히 아이엄마로서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미자선생님은 내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의사도 염려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미자선생님 덕분이다.

그리고 선생님의 뒷받침 덕분에 전문적인 플로리스트의 길도 걷게 되었다.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다녔던 병원도 그렇고, 나는 뭐든지 규모가 큰 곳에서 제대로 치료하고 배워야만 한다는 나름의 철학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서울 압구정에 있는 플로리스트에게 수학(受學)하게 되었다. 매주, 그것도 왕복 열 시간을 힘든 줄 모르고 다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을 오갔던 덕분에 나는 일 년 후 플로리스트 전문가 자격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미자선생님과의 인연도 어느덧 2년을 향해 가던 무렵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지 않겠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어린이집에서 적응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미자선생님과의 인연을 지속해 나갔다. 그렇게 또 사계절이 지나고, 우리 아이는 세 살이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는 ‘작은 사회’에 보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린이집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려 두었다.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일찍 입학 허가가 났다. 어린이집에 가게 되더라도, 미자선생님에게 최소 한 달 전에는 알리려고 했던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선생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려니,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입을 떼 나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정해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설레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백일잔치를 한 다음 날인 한창 추운 겨울이었어요. 두 분의 선생님께서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하셨습니다. 금천구 아이돌봄 프린팅이 된 티셔츠로 환복하셨고, 밝고 환하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저희 아가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아가들의 특성과 제가 하는 육아 방식을 물으셨고, 시간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스케줄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원하는 육아 방식을 말씀드렸고 선생님들은 그에 맞게 응답을 해주시면서 아가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만 보아도 저의 육아 방식을 마음에 안들어 하실 때가 종종 계시는데요. 자식 다 키워보신 선생님들도 오죽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의 육아 방식에 맞춰주려 노력하시면서 저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쌍둥이는 각각의 개성이 강하고 기질이 달라서 선생님 한 분이 한 아이를 맡아 그에 맞게 응해주시면서 상호 작용하시는 것이 좋았어요.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셔야겠다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확신을 한 부분이었습니. 처음에 가졌던 불안한 마음은 한 달 또 그 한 달을 넘기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쌓였어요. 2년 가까이 함께하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이들에 관해서 소통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아이돌봄이란, “쉽표-여백”입니다. 아가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가 천사들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도 행복하고 소중하지만, 24시간을 오로지 육아를 하는 것은 힘들었어요. 엄마는 그러면 안되는데, 너무 힘이 들 때에는 본인도 모르게 아기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아기들의 작은 요구를 무시하는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에는 엄마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울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엄마 노릇을 못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시 없는 소중한 이 시간이 엄마의 지침과 힘듦으로 채워져 온통 회색빛으로 채워져서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돌봄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는 제게 쉽표[]가 생겼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오시는 동안 어느 날에는 커피숍에서 여유롭게 차도 마셔보고, 장을 보면서 필요하고 원하는 여백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엄마지만 엄마라는 따뜻하고 무거운 단어를 잠시 내려놓고,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시간을 주었고 또 한 발짝 떨어져서 제 자신과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여백의 시간이 채워져 다시 엄마로 돌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 더 힘을 내고 웃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오시는 그 시간은 꼭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쉽표가 되어 저의 육아 라이프를 꽃피워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선생님이 오시는 시간에 자격증 수업을 들으며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밝고 선한 영향력을 주셨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이 아이들이 참 밝게 커가고 있어요.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 키우기가 너무도 어렵고 훌훌하다고 하는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 아이들은 밝고 건강히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고 씩씩하고 활발한 개구쟁이가 되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아이들이 참 잘 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엄마인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선생님 두 분 덕입니다.

선생님들의 긍정 에너지와 밝은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아 선생님들이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며 선생님들과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케어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돌봤다면,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나눠 반쪽짜리 사랑으로 다 채워지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컸을 거예요.

김00 선생님과 전00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아이들도 서로에게 지쳐서 다시 없을 이 찬란한 시간들을 모르고 지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들입니다.

엄마들의 시간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저는 비슷한 고민이 있는 주변 엄마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꼭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나 가정을 먼저 챙기기보다 엄마 본인을 먼저 챙기는 조금의 시간이라도 생긴다면 엄마의 삶은 조금 더 웃을 일들이 생길 것이라구요. 이렇게 도움 받아 자라고 있는 튼튼한 새싹 두 명이, 어린이집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멋진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겠죠. 이 시절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도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되어준																		
				돌보미 선생님																		
										포항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박민정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집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걱정스러웠던지, 퇴근 후 나 주말만 되면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신경이 쓰여 매일 청소하기에 바빴습니다. 오히려 서비스를 이용하고 한동안은 더 힘이 들고 부담스러워서 서비스를 쓰지 말까? 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둘째 딸아이의 성격이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돌보미 선생님도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번갈아 가며 계속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는지, 유치원 선생님과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떠올리며 아이와 대화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보미 선생님과 대화 도중 아빠의 손을 잡고 등원을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딸아이는 자신도 아빠의 손을 잡고 유치원 차를 타러 나오고 싶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속사정을 모르시고 주말부부로만 알고 계셨던 선생님은 주말에 아빠랑 실컷 놀자고 매번 아이를 다독이며 대화의 화제를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의 부재가 10살 아들에게는 행복이었으나, 5살 딸아이에게는 커다란 상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돌보미 선생님께 저희 가정의 속사정을 이야기했고, 선생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매사 언행에 신경을 쓰며 아이들을 대해 주셨고, 특히 둘째 아이와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아빠의 부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습니다. 저와 돌보미 선생님의 노력을 둘째 아이도 이해했는지 예전의 밝고 착한 모습으로 조금씩 되돌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선생님과 함께 한 지 벌써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한 분의 친정어머니												
		돌봄 선생님께												
								울산동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홍 옥 경								

첫날부터 둘째는 어린이집을 나온다는 생각 때문인지, 선생님의 인상이 너무 좋아

서였는지 뛰쳐나오며 유모차에 ‘착’하고 올라앉았다고 하셨지요. 말씀하시는 것이 부드러우시며 예쁜 선님이었죠. 그렇게 선생님과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상하리만큼 늘 알고 있었던 사이처럼 그냥 선생님께서 첫날부터 가족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돌봄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 아이는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 수 있었고 저는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까지 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안정이 되어있는 상황. 나는 이제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서 돌아가는 듯해 보여서 선생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고요했던 나의 생활에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은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유. 방. 암. 정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무지 왜! 내가 왜!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며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리냐며 엉엉 울기도 하고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주체 없이 흘렸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선희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들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선희엄마 몸부터 먼저 챙겨요. 이럴 때일수록 선희엄마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있잖아. 아프다고 나약해져 있으면 아이들은 더 불안해하고 아이들 마음도 더 슬퍼질 거야! 내가 옆에서 최대한 힘을 써서 도와줄 테니 우리 함께 이겨나가 보아요” 하셨습니다.

실은 아이들 걱정이 제일 먼저 되었는데 선생님의 한마디는 만병통치약처럼 들렸어요.

“맞아요. 선생님! 저만 걸리는 병도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도 걸렸고 죽을병도 아니고 수술하면 좋아지는 병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힘을 내야지요. 선생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수술 후 저도 집에 있었고 선생님께서 집에 함께 계시면서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의 원하는 부분을 적척 처리해주시고 저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육아 경험담을 나누어 주심과 함께 선생님께서 늘 공부하고 계셨고 항상 몸을 낮추어 겸손한 자세로 말씀해주셨어요. 20살이 넘는 선생님 본인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직도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며 공부하신다는 선생님의 모습은 뒷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솔직히 저는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였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매를 자주 들었던 엄마이었기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매를 들고 싶지 않았던 저에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을 하여야 하는지 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천천히 말씀해주셨어요.

함께 있으면서 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말씀해주시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면서 저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 정말 저는 유방암에 걸린 것을 감사하게 되었어요. 아프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아이들을 모르고 아이들에게 매를 들며 강압적인 엄마가 되었을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주며 저 역시도 제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진실로 유방암이란 병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으며 이것이 큰 힘이 되어 다시금 저를 살렸고,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과 아아들에게 해주시는 행동은 제게 오아시스 같은 오온영 박사님 같았답니다.

저는 마음을 볼 줄 몰랐던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참고 기다리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돌봄을 시작할 때 배웠던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이 우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운다면 센터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지금 이런 교육을 받게 됨을 너무 아쉬워하셨지요.

저는 돌봄선생님의 도움으로 양육에 대한 저의 무지함을 알게 되었고 공부를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죠. 선생님의 도움에 대해서는 여기에 글을 쓰자면 몇 장의 종이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의 글을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하실까 봐서 슬쩍 걱정되네요. 진짜 아닌데...

정말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자랑할 수 있고 선생님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둘째가 선생님께서 집에 가신다고 하니, 선생님하고 못 놀았고 울었던 거랑 선생님이랑 산에 가자고 말했을 때 언제 산에 가냐고 매일같이 물어서 선생님이랑 저랑 달려 보고 약속 잡았었죠. 그리고 산에 함께 가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선생님은 어찌 그리 산소 같은 말로 아이들을 이끌고 가시는지... 저는 정말이지 혀를 내둘렀죠!

저 아플 때도 산에 좋은 공기 마셔야 한다면서 아이들 없을 때 산에 함께 데리고 가서 감사했어요.

		조손 가정의 행복 찾기							
						의정부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김 기 정				

오늘도 아침에 만나 숙제 준비물과 물을 챙기고 식사하고, 머리 묶고 30분을 함께 등교하고 집으로 오면서 ○○이로 인해서 내가 행복했다고 느꼈다. ○○이와 함께 한 5년은 내게도 축복이었다.

[illegible]

매일 정해진 용량에 따라 특수 분유를 먹고 밥을 챙겨주는 날에는 식단조절을 하면서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겼다. 면역력이 약한 작은 아이는 잔병치레로 병원을 자주 갔다. 열이 있는 날에는 수분공급을 자주 해주고 열 체크도 수시로 하며 살폈다. 한번은 설사를 몇 번하며 변 색깔이 평소와 달라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다. 소변 검사지로 색상 확인 후 알려 달라고 하셨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신 후에야 안심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늘 긴장되고 마음이 조마조마 했지만 그때마다 빠른 대처로 잘 지나갔다. 큰 아이에 비해 작은 아이에게 돌봄이 약간 치중되었지만 많이 아아주고 애기도 들어주며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했다.

20년 2월경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가정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며 아이들은 할머니 댁과 집을 왔다 갔다 했다. 2년이 지나면서 체계가 잡히고 생활도 안정되어 갔지만 확진자는 늘어갔다. 22년 봄 개학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이들이 확진되었다. 작은 아이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열이 많이 난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 약 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 앞에 전달해 드릴 테니 연락해 달라고 했다. 필요한 건 주문을 했고 약은 전달받아 먹었다고는 했지만,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했다. ‘열이 얼른 내려야 하는데... 어머니도 아파서 아이 챙기느라 힘들 텐데...’ 여러 생각이 들며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오전 마트에 가서 목 넘김이 부드러운 과일과 간식을 구매해 어머니 집 문 앞에 두고 괜찮은지 문자를 보냈다. ‘잘 이겨내야 할 텐데...’ 걱정을 하며 집에 도착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답장이 도착해서 얼른 확인했다. 사진 속에 큰 아이는 두 손에 과일, 작은 아이는 간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물이 펴고 코끝이 찡했다. “선생님, 감사해요. 너무 감동했어요.^^ 이것 잘 먹고 우리 얼른 나을게요. 이제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많이 힘드시죠? 걱정했는데 애들 웃는 얼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어요. 얼른 쾌차 하세요.^^” 라고 답을 했다.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났다. 기쁘고 좋았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소파에 누우며 힘이 없고 목이 조금 칼칼하다고 했다. 분유도 평소보다 약간 따뜻하게 타 먹이고 생수도 자주 데워 주며 며칠간 상태를 잘 살폈다. 며칠 격리로 어머니가 장을 못 봐서 집에 마땅히 먹을 게 없었다. 다음 날 딸기와 떡을 사 와서 아이들에게 먹였다. “선생님, 달달한 거 먹으니 기분이 넘 좋아요.~ 선생님 최고!” 하며 엄지척을 했다. “달달해서 ㅇㅇ이 기분 좋구나!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참 흐뭇했다. 저녁에 어머니 퇴근이 늦어 만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문자를 보냈다. “며칠 만에 출근하니 일이 산더미죠? 완치되어도 건강관리를 한동안은 잘해야 되던데 직장 일에 아이들 케어까지 어머니가 제일 걱정이 되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하니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답장이 왔다. “선생님,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올 아이들 생각해서 잘 챙겨먹고 힘낼게요!”

가정에 밝고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며 아이들은 점점 건강한 모습을 찾아갔다. 그리고 어머니와 나는 이전보다 가까워졌고 더 편안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사랑을 받았다. 나 또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게 해주었다. 소중

한 시간 속에서 좋은 것들만 담아 채워주고 싶었다. 힘들어하거나 위축되어 있을 때 “그래, 힘들었구나. 내가 손 잡아줄게. 함께 하자. 괜찮아, 다시 해볼까?” 위로하며 용기를 주었다. 손을 내밀 때는 작고 여린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며 진실 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을 헤아려보려고 애썼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존중했고 필요한 것을 말씀할 때나 문자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정성을 담아 진실한 마음을 전하려 노력했다. 가끔 문자를 보냈는데 평상시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이나 장점,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내용이었다.

야근이 있던 저녁에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세요. 애들 저녁밥 먹이는데 ㅇㅇ이가 꿀떡꿀떡 하며 먹더니 ‘선생님은 천사 같아요.~ 반찬을 맛있게 해주시니까요.’” 라고 말해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ㅇㅇ이는 어쩔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할까요? 참 사랑스러워요. 저도 ㅇㅇ에게 ‘칭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며 방긋 웃어주었어요. 작은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의 마음 참 이뻐요. 건강 챙기면서 일해요.”라고 했다. 바쁘신 중에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주셨다. “선생님, 열 일하다가 톡 확인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애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애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잘 돌봐주신 덕분이예요.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해요. 특히 작은 아이는 참 아픈 손가락인데 다행히 밝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 톡 보니 힘이 나네요. 열일하고 후딱 가서 자고 있는 애들 볼에 뽀뽀를 발사해야겠어요. 좋은 밤 되세요.” 답장을 받고 내가 더 힘을 얻었다.

또 한 번은 어머니가 며칠간 지쳐 보이는 느낌이 들어 밤에 문자를 했다. “요 며칠 어머니 얼굴이 핏색해 보이던데 아픈 데는 없는지 해서 문자 드려 봅니다. 애들 키우느라 많이 힘드시죠? 엄마의 손이 한참 필요한 시기라 종일 얼마나 바쁠까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어머니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열심히 사는 어머니 모습 보며 안쓰러웠고 또 한편론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껏 정말 고생했어요. 어머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칭찬해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도울 테니 힘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트, 하트)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family scene. On the left, a young child with blonde hair, wearing a blue long-sleeved shirt, white pants, and a blue cap, is riding a white rocking horse. The horse has a yellow mane and tail. Above the child is a thought bubble containing a yellow silhouette of a family (two adults and a child). On the right, a woman with dark hair, wearing a blue long-sleeved shirt and red pants, is kneeling and holding a baby. The baby is wearing a blue onesie and white socks. Above the woman is a thought bubble containing a yellow baby bottle. The background is white with several yellow stars and a yellow circle with a horizontal line through it.

		함께 돌보면 어려움도 척척척!							
						광주서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김 종 임				

○○네는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아이들에게 마음이 더 쓰입니다. 그래서 바깥 놀이를 할 시간을 자주 갖기도 하고, 학습에 뒤처질까 학습지를 준비해 가기도 합니다. ○○는 셈하기나 그리기 등 학습지를 준비해 가면 조금만 도와줘도 잘 해결하는 영리한 아이입니다. 동생인 △△는 그런 언니를 보며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주세요.”하며 꼭 함께한다고 떼를 씁니다.

아기 상어나 아기곰 노래를 함께 부르며 춤을 추다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화살표를 밟는 펌프를 하며 자매간 펌프 대회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3년을 함께 놀다 보니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도 부르고, 할머니라고도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센터와 돌보미 활동을 이야기하다 “팀장님, 혹시 어려운 가정에 학용품이나 식품 등 지원이 있나요?”하며 ○○네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센터에서 쌀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학교 놀이를 함께 하는데 ○○가 “선생님, 저는 나중에 돌봄 선생님이 될 거예요.”라고 하자 동생도 “나도, 나도!” 합니다. “왜 돌봄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라고 묻자 “우리 돌봄 선생님이 좋아요. 그래서 좋아 보여요.”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 말하기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의논하신다면서 “다른 구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선생님께 계속 아이를 맡기고 싶어서 옆 아파트로 가려고 해요. 선생님, 계속 돌보미 하실 거지요?”라고 하시더군요. 저를 신뢰하시는 어머니 마음이 감사해서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로 건너편 아파트로 이사 간 아이들은 매일 저를 기다리며 엄마한테 “선생님 평일에도 오게 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돌보미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는 또 다른 가정은 세 살 쌍둥이 여자아이와 두 살 남자 아이가 있는 다자녀 가정입니다. 쌍둥이 아이 둘은 어머니께서 돌보시고, 두 살 남자 아이만 돌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같이 계시면 아이가 엄마를 찾을 텐데... 세 명의 아이가 함께 있는 한 공간에서 영아만 돌볼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상황에도 아이들을 잘 돌봐 왔으니, 경험을 살리면 잘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를 볼 때는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이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서 “선생님, □□이가 왜 울어요?”라며 확인하곤 했습니다. 며칠 묵묵히 돌보미 활동을 하니 □□이 어머니는 아이가 울어도 바로 들어와서 확인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순하기만 하던 □□이는 점점 자라면서 장난꾸러기가 되어 갔습니다. 장난감을 던져 제 다리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좋아서 배에 올라와 뛰다 저와 박치기를 해서 이가 아프기도 했지만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손자들을 키울 때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는 식탁 밑에 들어가면 응가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응가를 하고도 기저귀를 갈기 싫어서 절대 나오지 않지요.

“□□아, 차 목욕시키러 가자~. 차가 지금 목욕하고 싶다고 하네.”하고 차로 꼬드기다 보면 워낙 차를 좋아하는 아이는 차를 따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저는 얼른 □□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엉덩이를 씻깁니다.

쌍둥이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할머니 집 어디예요? 할머니 따라갈래요.”라고 할 정도로 매우 친해졌지요. □□이가 기고 걷고 커가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 쌍둥이도 저를 찾아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세 아이에게 돌보미 필요하면 □□이 어머니가 “선생님”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착착 문제 해결! 호흡이 척척!

□□이 어머니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게 친정어머니를 대하듯 마음속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민되는 일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저는 세상 살아온 경험으로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하소연에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며,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선생님이 친정엄마 같아요. 제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합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 어머니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도 꼭 돌보아 주세요.”라고 합니다. 저는 “예~ 아이돌보미는 제가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열심히 잘 돌보게요.”라고 대답합니다.

71년의 인생에서 다양한 일을 해보았지만, 누군가를 돌보고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도 다른 이들에게 아이돌보미 활동이 보람차고 좋다고 권유를 합니다. 저와 인연을 맺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 제 손을 떠날 때까지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으로 돌볼 것을 또 다짐해 봅니다.

[illegible]

두 번째 출근.

휴대폰을 아이 눈에 띄지 않게 한쪽에 두었다. 아이는 방에서 나와 잠시 두리번거렸다. 휴대폰이 없다는 걸 알고 갑자기 엉덩이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고, 난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일어났다. 그렇게 다행히도 둘째 날부터는 폰을 찾지 않게 되었다. 등원 돌봄이 두 시간이라고 해도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했고 그사이 휴대폰을 보지 않도록 아이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보았다. 해주고 싶은 게 많아 늘 시간이 부족했다.

아이와 우유갑으로 색연필 정리함을 만들고, 그림인형 색칠놀이를 하고, 여러 가지 색으로 반죽한 밀가루에 모양을 찍고 만들기 등 모두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재미있어 했다.

나와 함께 하는 시간에 활짝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또한 보람이 되고 나도 뭔가 가슴 뭉클하고 뿌듯했다.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현재의 내 삶이 참으로 뿌듯하고 보람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걸 돌보미 활동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남들이 흔히 말하는 아이돌보미는 단순히 ‘아이 보는 거’ ‘아이와 놀아주는 거’...맞다. 진심을 다해 놀아주는 거다. 하지만 재미있고 즐겁게 놀아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일이, 아이와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아이의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한 가정에는 단순하지 않은,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후에 돌보는 2세 남아가 있다. 돌봄 활동이 끝나고 아이와 헤어질 때면 웃는 모습 한번 더 보고 싶고, 빠이빠이 받으려고 쉽게 발을 떼지 못한다. 그러다 돌아서는 나는 분명 행복해하고 있었다. 아이가 책을 들고 엉덩이를 내밀며 내 무릎에 앉았을 때 설레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난 그 순간 그 기분을 쉽게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아이를 돌보지만 그 아이가 내게 주는 기쁨 또한 크기 때문에 아이돌봄 활동을 하면서 난 분명 많이 행복하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느낀다. 이 또한 내 삶에 큰 변화이고 큰 보람이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아이돌봄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이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언제나 열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긴다. 그래서 아이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매일매일 힘차고 가볍다. 그래서 난 오늘도 파이팅이다!

〈아이돌보미 우수사례〉

선생님, 옷이 빨간 고추 같아요!										
						경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 규 자										

그리고 보니 2년 전 오늘, 봄이를 처음 만난 날입니다.

“봄아! 오늘 놀이터 갈 거니?”

“아니요, 선생님! 내 집에 갈래요.”

“내 집? 봄아! 집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지?”

“엄마. 아빠. 내요.”

“그래. 엄마, 아빠, 봄이가 함께 사는 집은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거야. 책상, 침대, 장난감은 나 혼자 사용하니 내 책상, 내 침대라고 하고.”

자주 놀이터에 놀다 가는 봄이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맛벌이 가정의 봄이는 일상생활 대화 시에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못해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봄이를 처음 만나던 날, 저는 사실 당황했고 무척 긴장했습니다. 몇 번을 불러야 대답을 했으며,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고, 윗 층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제 곁에 바짝 다가오곤 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 식판에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을 보니 여러 물건들이 차지해 식판 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봄이도 어색해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영상시스템을 보시고, “저렇게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건 처음이다.”라며, 늘 TV 앞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돌아다니며 거의 한 시간 동안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지 않아 동화책을 몇 권씩 읽으며, 일지(메모장)에 봄이가

직접 그림, 글씨 등을 끄적이며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같이 식탁에 앉는 습관을 들여 나갔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우선 동화책 읽기가 소통과 단어 구사에 가장 좋은 도구라고 여기고, 매일 여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봄이와 같이 썼습니다. 오늘 날씨도 쓰고 지금 반찬 종류를 적어 보고, 그림을 그리며 대화를 늘려 갔습니다. 감자조림이 있을 때는 감자가 어떻게 자라며, 감자 모양도 그려 애기를 나누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산을 그리고, 날씨에 따라 구름, 햇님을 그려 봄이가 좋아하는 색연필로 칠하며 단어를 늘려나갔습니다.

식탁에서 밥 먹는 모습을 찍어 어머니께 보냈더니, 놀라워하시고 감격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봄이의 모든 습관을 리셋한다는 각오로 작은 것부터 조금씩 점차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휴지를 돌돌 말아 한 움큼 사용할 때는, “소변은 세 칸, 응가는 다섯 칸”하면서 세세히 지도했습니다. 용변 후 손 씻기, 볼 끄기 등, 봄이의 눈높이에 맞는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였습니다.

입학을 앞두고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치료를 다녔는데 끊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익히기 위해 봄이의 장난감을 모두 단어로 써보고, 동화책에 받침 없는 글자는 한 줄씩 교대로 읽기와 집배원 아저씨 놀이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두 세 단어 문장 만들기 놀이를 했습니다. 차츰 봄이는 저와 소통이 조금씩 원활해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일까요?

어느새 봄이는 동화책도 읽고 쓰기도 제법 잘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 날 계획을 봄이와 의논하고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TV 보는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0분으로 정했는데, 아직 시간 개념이 부족한 봄이는 시청 시간이 다소 짧다는 것은 모르고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올해 봄이는 입학하여 의젓한 1학년이 되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면서 TV 시청도 계획대로 “20분 다 됐다”하면 바로 끄며 시간을 지키고, 동화책 읽기, 숨바꼭질 등 놀이 시간도 지키며, 식사 시간도 계획표 시간을 보고 봄이는 밥 먹자고 합니다. 옷을 벗어 제자리에 개켜 놓고, 신발 정리도 저를 따라서 현관에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요즘은 제 옷을 보면 꼭 표현도 해 줍니다. “선생님, 옷이 빨간 고추 같아요.”

처음 사용하는 단어를 들으면 놀랍고 정말 기쁩니다.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엄마 잔소리가 고통이에요.”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 첫날, 봄이는 “오늘 아나스타샤가 없어 궁금했어요.”라고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반 아이가 휴학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퇴근해 오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저는 봄이가 “궁금하다”는 말을 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 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가끔은 자기의 속마음도 표현합니다. “친구가 없어 슬퍼요”라고 말하고, 어머니 전화가 오면 받지 않고 “엄마는 잔소리가 많아서 받기 싫어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봄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조곤조곤 설명하고 이해를 도우며, 또 다른 대화로 소통하는 걸 연습하곤 합니다. 이런 내용도 모두 기록장에 써 놓고 봄이의 일상을 어머니와 함께 나눕니다. 어머니는 매번, ‘또래에 비해, 말이나 표현이 느려서 마음고생 많이 했었는데, 봄이가 눈에 띄게 달라져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올해 이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선생님 아니었으면 직장도 못 다닌다’며, 제가 오기 전에 다른 돌봄 선생님이 있었는데, 또 변동이 있을까 봐 염려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하루는 봄이가 오른손, 왼손을 바꿔 말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물론 봄이는 다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긴다’라는 단어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장난도 치고, 가끔 고집도 부리며, 바쁜 부모님의 품이 늘 부족한 자리에 웃음과 소통을 채워가고 있는 봄이가 너무나 대견합니다.

저 또한 옆집 아이와 봄이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천진난만한 봄이를 대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야 할 한 아이 입을 깊이 깨닫습니다. ‘짹’(습)이 백 번 날개 짓을 해야 날 수 있다는 뜻처럼, 봄이의 느린 성장을 기다리며 저 또한 성장하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봄이를 보면서, 한 사람의 미래를 그려 봅니다. 제가 하는 이 돌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일임을. 오늘도 저는 봄이의 효능감을 적절해 주는 使徒(사도)의 자세로 현장에 임합니다.

			나의 보람, 아이돌봄																			
										부산북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조 순 정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친구들은 자기만 보면 놀리고 유치원과 태권도 학원은 가기 싫고 재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큰소리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상황과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진심으로 공감해 주고 선생님이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격이 굉장히 밝아지고 친구와 사귀는 방법도 조금씩 알게 되어 친구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자에 관심을 가져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교재를 사서 매일 한자 학습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점차 새로운 것을 아는 기쁨을 알고 질문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변하고 성장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 있고 저도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서로 의견이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섭섭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 미리 규칙과 원칙을 정해두면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처음에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여 어떤 돌봄을 원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맞춥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보는 아동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살피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그냥 건성으로 나를 대하는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지 아이들은 정말 잘 압니다. 아이와 유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가 돌봄 활동 시간을 아이와 씨름하면서 힘들게 보낼지 아이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판가름이 납니다.

저는 그 가정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님들은 매우 바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가정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저는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와 느낀 점을 나누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가정에 읽을 책이 부족해서 당근마켓에서 만원을 주고 책 백 권을 사서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어머니께 상의를 드렸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생일과 어린이날에는 손편지를 써서 간단한 선물과 함께 축하를 해주었는데 아이가 감사를 표현하고 그 편지가 너무 소중한다니면서 보물 상자에 간직해두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둘째가 15개월 때 어린이집을 운영했었고 그 후에도 늘 일을 하면서 육아는 정말 힘든 숙제였습니다. 저의 원래 꿈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주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늘 일을 하셔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맞아주는 분이 없었고 엄마 있는 집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엄마가 되고 보니 원래 일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일을 계속해야 할 형편이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꿈을 지금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간식 챙겨주고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일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며 교육적으로도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훗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돌봄 선생님이 함께 계셔서 너무 좋

았어,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라고 기억해주고 부모님들이 '내가 맞벌이로 힘들었을 때 돌봄 선생님이 계셔서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가 있었지, 정말 고마우신 분이었어.' 이렇게 기억해준다면 저희가 받는 보수 이상으로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아이의 거울과 같습니다. 작은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 아이들이 비추는 좋은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에게도 꼭 필요한 좋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illegible]

1권 첫 장을 넘겨보니 ‘셀렘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습 첫날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10여 년 전 아이돌보미라는 내 생애 첫 직업을 갖게 된 셀렘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러나 남의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짧은 활동 시간은 교육에서 배운 걸 토대로 소통하고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 할 수 있었지만, 활동 시간이 길수록 지루함이 느껴졌고 능력 부족이 드러났다. 활동 후 만족감이 떨어져 자신감도 상실해 갔으며, 부모님과의 신뢰를 쌓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정부애

활동 초기에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런데도 매일 만나는 아이들에게는 한계를 느꼈다. 놀이가 아이들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문화센터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예를 등록해 자격증을 땀다, 미술놀이 책을 사 보고, 유튜브 채널을 찾아 놀이와 만들기를 연습해 보았다. TV 프로그램도 어린이 프로그램 위주로 보며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려 했다. 아이들과 관련된 것을 생활 속에 익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활동을 나가기 전에는 그날그날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짜서 준비물을 챙겨 활동에 나섰다.

놀이 위주의 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아이도 즐겁고 나도 즐거웠다.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아이의 웃음을 보고 미소 짓는다.

11년이 지난 지금은 정기로 24개월 된 남자 쌍둥이를 돌본다. 보통 백일 정도에 연계가 되면 그 가정의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돌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90일이 된 영아를 만났다. 또다시 배움의 시작이었다. 보수교육 책자를 찾아 발달 단계를 알아보고 영아를 돌보는 선배님께 조언을 듣고 활동을 시작했다.

옹알옹알 옹알이를 하던 아기가 어느 날 ‘엄마’하고 부른다 지금은 ‘선생님’하고 부른다.

한 가정의 아이를 함께 키워 커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슴 벅찬 일인가?

둥이들이 성장하는 개월 수만큼 늘어나는 놀잇감을 만들며 나도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다.

정부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보람되고 경제활동을 하니 코로나로 힘든 남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도전해 보고 싶은 일도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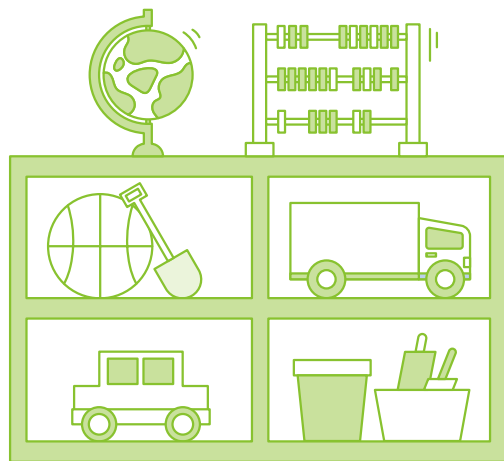
좀 더 나이가 들면 아이돌보미 활동 경험을 살려 손주랑 함께하는 집콕 놀이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아이돌보미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다.

돌보미를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놀이감이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실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놀이 활동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큰 비용 안 들이고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하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 아이들을 돌보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멋진 나 자신을 상상해 본다.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밋밋했던 내 삶에 꿈과 열정이라는 단어는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평범한 주부로, 엄마로, 아줌마로 살았을 것이다.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님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아이들이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육아전문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늘 노력하는 아이돌보미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본다.



〈종사자 우수사례〉

이용가정과 아이돌봄 선생님에게																			
소통으로 웃음꽃 피워드리는 정원사																			
																서울중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승은현									

“송은현님. 서울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채용 과정에 합격하셨습니다.” 기다렸던 전화를 받고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2021년 뜨거웠던 7월 여름날, 서울 중구 아이돌봄 지원사업팀에 합격했다. 간절히 고대했던 순간이었다. 학창시절 건강가정론 과목을 수강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건강한 가정이 많이 세워지길 꿈꾸는 내가 이곳에서 일하면 정말 보람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특별히, 대학생 시절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놀이하는 놀이시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돌봄 현장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했기에, 이용자와 돌보미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 일하고 싶었다.

뽀뽀뽀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 입사한 첫날, 팀장님은 말씀하셨다. “은현 선생님. 이번 달 말에 소통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처음 하는 프로그램인데 기대가 돼요. 함께 잘 준비해보아요.” 내가 준비하는 첫 프로그램이라니,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용가정도 돌보미 선생님도 만족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소통 프로그램은 이용가정과 돌보미 선생님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드리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했다. 그 결과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퀴즈를 맞추는 '우리는 환상의 짝꿍!'이라는 레크리에이션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선물을 만드는 ‘마음을 전해요’라는 만들기 프로그램을 야심 차게 준비했다.

더 많은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참여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랐다. 모집을 위해 가능한 많은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했고, 결국 계획한 인원만큼 모집이 되었다. 어찌나 기쁘던지! 모집된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선물 꾸러미 같은 시간을 드리기로 다짐했다. 또한 만들기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제출받은 아이들의 예쁜 사진을 매일 바라봤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선생님의 사랑 가득한 돌봄을 받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뿌듯함과 기쁨이 밀려왔다.

드디어, 소통 프로그램 당일 날이 되었다.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사진으로 봤던 아이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화면으로 만나자 반가워 절로 웃음이 났다. 아이들은 화면 속의 돌보미 선생님을 바라보며 외쳤다. “선생님! OOO선생님!”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피꼬리 같은 목소리에 “우리 OO이 안녕!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OO이”라고 환하게 웃으며 화답하셨다. 친손주와 친할머니와 같은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모습을 보자 평소 사랑 가득할 돌봄 현상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1부는 퀴즈 프로그램이었다. 서로가 좋아하는 것 등 다양한 질문 퀴즈를 진행하며 “답관 들어주세요!”를 연신 외치는 동안 아이들은 함께 들떠서 집중해 참여했다. 아이들의 신난 모습에 선생님과 이용자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깜짝 게임으로 집에서 ‘동그라미’, ‘네모’ 물건을 가져오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모두 흠뻑 젖어 집 안 물건을 한 아름씩 챙겨와 신나게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중 가장 가슴이 뜨겁게 먹먹했던 순간은 ‘다음 중 선생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라는 선생님께 던지는 질문 시간이었다. 선생님들은 저마다의 행복했던 시간을 소중하게 꺼내어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한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해요. 매일 출근해서 아이랑 놀이할 때 아이가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는 고마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웃고 계셨고, 아이도 선생님에게 싱그럽게 웃어 보였다.

발표하는 선생님들의 진심이 화면 너머 먼 곳에 있는 나에게도 온전히 전달되어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순서 중에서 아이들로 인해 행복한 순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두 눈이 반짝이며 기뻐 보이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환

하게 빛나 보였다. 선생님의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자로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프로그램을 기쁘게 마무리한 다음 주에 제출하신 만족도 조사지와 인증사진을 보며 다시금 감동이 밀려옴을 느꼈다.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좋았던 점에 대해 돌보미 선생님들은 ‘이용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좋았다, 아이들과 영상으로 만나 더 친밀감을 느꼈다, 아이들을 만나 애뜻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고, 이용자는 ‘일부러 만들기 힘든 귀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선생님과 팀워크가 돈독해졌다.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을 고마운 선생님에게 선물로 표현하게 되어 좋았다. 이번 기회로 선생님에 대해 더 알게 되어 좋았다. 평소 알고 있던 선생님 생신이나 좋아하는 음식 등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다. 1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해드린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고 기뻐했다.

이후, 우리 센터는 계속해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꾸준히 새로운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설렘과 감사로 채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한 팀이자 파트너이기에 그 관계가 견고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센터에서 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하다.

작년 12월에는 아이돌봄 놀이 영상 공모전을 열고, 연말행사에서 이용자들과 함께 이에 대한 시상과 수상 영상 감상을 진행했다. 이용자의 수상 소감을 전하는 시간에는 다양한 사연들로 코끝이 찡했다.

한 이용자는 3~4년째 네 자매를 외할머니처럼 키워주시는 선생님과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하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없으면 육아를 할 수 없을 거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선생님이 몸이 아픈 것에서 회복되자 다시 아이들의 돌보미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한 이용자는 선생님이 두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자신에게 늘 친절엄마같이 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 또한 뭉클해지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샘솟음을 느꼈다.

그간 아이돌봄팀의 실무자로 1년간 일하며 가장 보람됐던 순간들은 이용자와 돌보미 선생님이 서로에게 고마움과 애정을 느끼는 것을 목격할 때였다. 전화 모니터링 중



2022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김금옥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7 합정동 웰빙센터

전화 02-3140-7900

홈페이지 www.kihf.or.kr

기획·편집 돌봄지원부(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